

‘理’로써의 마음인가 ‘氣’로써의 마음인가

— 근사록 집해 제4권 존양(存養)편을 중심으로 —

고창원

(서울대 경영학과)

1. 들어가며

일상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잘 맞는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져라’,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와 같은 말들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런 일상 어구의 주제가 되는 ‘마음’은 비단 오늘날 뿐 아니라 예부터 동 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학문적으로는, 오늘날의 경험과학의 한 분과인 심리학으로 정착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송대 학자들에게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는데, 장재, 이정, 주희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체계에서 ‘마음(心)’은 수양의 대상이자 그들 철학의 중심 주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런데 이들에게 각각 ‘心’의 의미가 항상 같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을 심리적인 ‘작용(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심리적인 것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본체(體)’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마음에 관한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주희’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주희가 사상을 정립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철학자로 정이가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주희의 명성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점에 착안하여 정이의 수양론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을 읽던 중 정이가 ‘마음’을 바라본 관점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학자는 정이가 마음이 본성, 감정과 하나라고 주장했다고 논하는 반면, 어떤 학자는 마음과 리를 동일시하여 생각, 감정, 의도와 같은 심리적 현상

은 마음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고 논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정이가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 근사록 집해 제 4권 ‘존양’편을 중심으로 수양 대상으로서의 마음의 구체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이에게 수양이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도 알아보려 한다.

2. 정이의 ‘마음’에 관한 관점에 대한 상반된 해석.

먼저, 손영식 선생의 다음 주장을 살펴보면 정이가 심, 성, 정을 하나로 보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정호가 주장한 하나인 본체가 여러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관점주의)을 마음에 적용한다. 하늘이 이 마음에 명령한 것이 본성이다. 그 본체를 본성(性; 양심)이라 하고,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감성(情)이며, 그 사이에서 본성을 따를 것인가 감성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여 행위를 하는 주체가 마음이다. 그 셋은 결국 하나라는 것이다.”¹⁾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A.C 그레이엄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리는 우리의 몸을 주재하는 데 이런 관점에서 그것은 마음이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마음과 리의 동일시는 이정이, 주희와 달리, 마음을 ‘알도록 하는 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식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²⁾

”마음을 결코 변함없는 리와 동일시함으로써 이천은 사유, 감정, 의도가 마음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마음은 그

1)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1, p.204.

2) A.C. 그레이엄, 이현선 역, 《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Two Chinese Philosophers)》, 심산, 2011, p.133

러한 것들이 기반하고 있는 본체이기 때문이다.“³⁾

이는 유서 18-90과 22上-97을 해석하고 평가한 것인데, 유서 18-90에서 ‘발하고 나면 감정이라고 불러야지 마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구절과 ‘마음이 있는 후에 의도가 있다’는 구절에 주목한 평가라고 생각된다.⁴⁾ 이와 관련하여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하거나 통합하는(統)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희에 의해 정리되기도 하는데, 그 레이엄은 주희 자신도 이전 시대의 장재의 주장과 부합하도록 마음을 ‘기’라고 주장하면서 헛갈려 한다고 지적한다.

주희는 마음을 리와 기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 있어 이정만큼이나 곤란을 겪는다. 어떤 구절에서 그는 마음이 기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오직 이전 시대 장재의 주장과 부합한다.)

마음은 기(氣)의 능동적 본질이다.[語類] 5-28 ⁵⁾.

3) 위의 책, p.135.

4) 문 : 마음에 선과 악이 있습니까?

답 : 하늘에 있어서는 명령이 되고, 사물에 있어서는 리가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성이 되고, 몸을 주재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된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이다. 마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생각에서 말하면 선과 악이 있게 된다. 그러나 발하고 나면 감정이라고 불러야지 마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물에 비유하자면 다만 물이라 부르는 것이지만 흘러가 물갈래를 이루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경우에 흐름이라고 부른다. [遺書 18-90]

문 : 맹자가 말한 마음, 본성, 하늘은 다만 하나의 리입니까?

답 : 그렇다. 리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하늘이라 하고, 품수한 측면에서 말하면 본성이라 하며, 사람에게 보존된 측면에서 말하자면 마음이라고 한다.

문 : 내적인 모든 운용이 마음입니까?

답 : 그것은 의도(意)이다.

문 : 의도는 마음이 발한 것입니까?

답 : 마음이 있는 이후에 의도가 있다.

(중략)

문 : 사람이 어떤 것을 쫓는다면 마음이 그것을 쫓는 것입니까?

답 : 마음은 나가고 들어움이 없다. 어떤 것을 쫓는 것은 욕망(欲)이다. [[遺書 22上-97]

5) 위의 책, p.139.

이렇듯 정이가 어떻게 마음을 바라보았는지를 확정짓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대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근사록집해의 ‘존양’편을 검토하면서 이정이 수양의 대상으로서 마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한다.

3. 정이와 존양(存養)의 대상으로서의 마음

－ 비움의 대상이 아닌 ‘기르고 보존할 대상’으로서의 마음

이정 이전에 마음과 수양의 관계에 대해 논한 학자로 장재가 거론되는데, 그의 수양은 개별의식을 제거하는 허심의 수양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외부에 놓여있는 하늘의 질서, 즉 ‘예(禮)’를 얹매임 없이 배움으로써 객관적 세계의 질서를 내면화하고 이에 순응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정이의 수양은 천지 만물의 이치(理)가 이미 내 안에 있으므로 마음을 비워내려는(虛心)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보존하고 길러냄으로써 리(理)의 주재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평가된다.⁶⁾ 근사록집해 제4권 존양편의 다음 구절은 마음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장재식 수양에서 나타나는 ‘분열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1.

사람의 마음이 주인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잠시도 정지하지 않고 돌며 움직이는 물레방아와도 같다. 마음은 수많은 사물과 접촉하는데, 주인이 되지 못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중략)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선

6) 이현선,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장재와 이정의 철학 - 이정의 장재 비판을 중심으로』, 2010, pp.212-214 참고.

을 행하려고 하면 악한 사람이 있어 그것을 간섭하는 듯하고, 또 선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다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듯하다. 본래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증거이다. ‘자신의 의지를 지켜 기(氣)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요컨대 성인과 현인들은 결코 이러한 마음의 병에 해를 입지 않았다.

중략 이전의 구절은, 마음을 비워내는 것으로서는 올바른 수양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내 안에서 도덕적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면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객체로서의 내 마음은 언제나 외부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마음이 ‘비워야 할 대상’이 되면 그것을 ‘비워내는 주체’도 필요한데, 이렇게 분열된 마음이 모두 내부에 존재하게 되므로 없어져야 할 대상이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이정 중 한사람은 마음을 비우기보다는 ‘마음에 주인을 세우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

여여숙이 말했다. “생각이 여러 갈래로 일어나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답했다. “이것은 바로 허물어진 집에서 도적을 막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동쪽에서 들어온 도적을 아직 쫓아내지 못했는데, 서쪽에서 또 다른 도적이 들어온다.

(중략)

이것은 또 비어 있는 통을 물에 넣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통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만약 통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그것을 물 속에 넣으면 물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대개 내면에 주인이 있으면 꼭 차게 되고, 꼭 차면 밖으로부터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므로 자연히 아무 일도 없게 될 것이다.

통 속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 비유된 마음에 ‘주인 세우기’는 외부

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 도덕 실천의 담지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 이정 중 한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40.

涵養吾一 (程氏遺書 15-3)

하나로 통일된 나의 마음을 함양한다

心存則不二

마음을 보존하면 마음은 분열되지 않는다.

이렇듯 마음이란 더 이상 억지로 비워내는 대상이 아니므로 분열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정은 마음을 비워내야 할 대상에서 보존하고 길러야 할 대상으로 관점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일까?

4. 리로씨의 ‘마음(心)’ vs 기로씨의 ‘마음(心)’

그것은 정이가 이전에 ‘기’로 바라보던 관성에서 벗어나 “마음과 본성이 리의 서로 다른 두 측면⁷⁾”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절은 세상의 이치를 품부한 원리로씨의 마음을 보존하고 길러낼 것을 당부하는 구절이다.

14.

정이가 말했다.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공경스럽게 이 마음을 지켜야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마음을 깊고 두텁게 길러서 그 속에 충분히 젖어든 뒤에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 급박하게 서둘러서 구하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일 따름이니, 끝내 도에 통달할 수 없다.”

7) A.C. 그레이엄, 이현선 역, 《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Two Chinese Philosophers)》, 심산, 2011, p.137.

여기에서, 마음속에 ‘충분히 젖어든 뒤에’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 이미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理)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안에 젖어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키거나 보존해야 할 것은 본성(性)이고, 하늘이 준 이치(理)이다. 장재는 그것이 마음에는 있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고 따라서 외부에 존재하는 ‘예(禮)’에 의거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이정처럼 고정 불변의 형이상학적 원리로서 절대적인 초월적 가치를 갖는 理가 이미 내 마음에 갖추어져있다고 본다면 장재에 비해 더욱 주체적인 수양이 가능하다. 내면에 도덕 원리가 갖추어져있으므로 불안 속에서 요동치며 외부에 좌우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이가 마음을 ‘본성’과 동일시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기’로 파악하면서 일상적 의미에서 마음을 심리상태와 동일시하며 마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마음이 ‘리와 기’로 이원화되어있다고 본 관점이 보다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근사록집해 제4권 존양편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경을 말하는 다음 구절이 대표적이다.

48.

(전략)...

경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주된 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선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깊이 음미해야 한다.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으면 둘이나 셋으로 분열될 것이다.

...(후략)

[程氏遺書 15-177]

이 구절은 분명 마음이 ‘옮겨갈 수 있는’ 혹은 ‘둘이나 셋으로 분열될 수 있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하지만 만약 마음이 ‘리(理)’로서의 본성이라면 이는 결코 분열될 수 없는 본체이며, 애초부터 기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물론 기에 의해 본성이 가려질 수는 있어도 ‘분열’된다거나 ‘옮겨간다’고 얘기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정이가 말하고 있는 ‘마음’은 이전 장재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로서의 마음이라고 함이 이치에 합당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가?

5. 존양편에 나타난 ‘기로써의 마음’의 구체적 의미 — “의지의 차이”

A.C그레이엄에 따르면, 송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된 마음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 (a) 인식(知, Knowledge). 동물은 단지 보고 들은 것만 알 수 있다. 사람은 이외에도 리를 지각하며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성인은 추론할 필요도 없이 모든 원리들을 즉각 깨닫는다.
- (b) 감정(情, Passion). 보통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으로 대표된다. 때때로 사랑, 증오, 욕망을 포함하여 일곱 가지로 열거되기도 한다.
- (c) 의지(志, Purpose)와 의도(意, intention). 의지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목표(학문, 도, 성인되기)를 지향하는 것이고, 의도는 특정 상황에서의 행위를 지향하는 것이다.⁸⁾

물론 그레이엄이 지적해했듯이 이천 스스로가 마음을 “변함없는 리와 동일시함으로써 사유, 감정, 의도가 마음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⁹⁾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로써의 마음의 의미를 읽어내려는 시도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천은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기’의 의미를 내포하며 사용하였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히 ‘(c)의지’의 의미로 파악된다.

8) A.C. 그레이엄, 이현선 역, 《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Two Chinese Philosophers)》, 심산, 2011, pp.131-132.

9) 위의 책 p. 135

48.

(전략)...

경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주된 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선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깊이 음미해야 한다.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으면 둘이나 셋으로 분열될 것이다.

...(후략)

[程氏遺書 15-177]

여기에서 마음을 ‘의지’라고 보면 해석에 무리가 없다. 앞서 말한 바대로, 마음이 ‘리’라면 애초부터 옮겨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본성의 의미를 배제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도를 추구하는 뜻을 전일하게 하나로 하여 그 뜻이 움직이지 않도록(‘옮겨가지 않도록’) 하며 뜻이 나뉘어 애초에 의도한바와 다른 마음(뜻)을 갖게 되어 둘이나 셋으로 나뉘지 않게 하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감정이나 인식을 대입한 것보다 자연스럽다. 다음의 경우 정호가 말하는 구절에서도 마음을 ‘의지’로 읽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62.

정호가 말했다.

“사람이 가진 404가지의 병은 모두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자기 자신이 제어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마음은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며, 그것은 마음이 이미 ‘기’의 세계 혹은 형이하의 세계에 있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 의미는 ‘의지’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의지는 우리가 세우고 강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구태여 ‘의지’로 파악하는 근거는 존양편에서 ‘뜻’을 확고히 하라고 명백히 밝히는 다음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56.

“자신의 뜻을 확고히 하고 기운을 난폭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과 밖이 서로를 기른다는 의미이다. [程氏遺書 18-98]

이 구절은 존양편에 나오는 구절로 ‘뜻을 확고히 함’을 ‘안이 밖을 기른다’에 대응되는 말임을 밝히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분명 ‘마음’이라는 말을 명시해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존양편에서 말하는 ‘보존하고 기르는 것’은 뜻(志)을 확고히 함으로써 마음을 기르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14절도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리’로써의 마음이 아니라 ‘기’로써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다.

14.

정이가 말했다.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공경스럽게 이 마음을 지켜야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마음을 깊고 두텁게 길러서 그 속에 충분히 젖어든 뒤에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 급박하게 서둘러서 구하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일 따름이니, 끝내 도에 통달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마음을 지켜야’라는 구절, 그리고 ‘마음을 깊고 두텁게 길러서’라는 구절이 바로 존양의 대상이 마음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뜻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안을 기르는 것에 대응하므로 뜻을 확고히 하는 것, 즉 의지를 세우는 것이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즉 ‘의지를 세우는 것 자체’를 ‘마음을 기르는 것’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마음은 의지와 같은 의미로 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된다.

물론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는 마음이 ‘(b)감정’의 의미에 가깝게 쓰이기도 하였다.

17.

지금 의리에 뜻을 두고서도 마음이 편안하거나 즐겁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후략)

여기에서 원문에는 ‘心不安樂’이라고 쓰여 마음이 감정을 느끼는 대상으로 감정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처럼 보이며 이 구절에 나타난 마음을 ‘의지’로 곧바로 대응시키기 어려운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7절 바로 이전에 나타나는 16절에서 마음을 ‘의지’에 대응시켜 해석한 뒤 이를 17절에도 적용해본다면 ‘마음의 편안함과 즐거움’도 결국 의지의 확충 결과로 나타난 심리적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마음을 ‘의지’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16.

요즘 배우는 사람들이 경하면서도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고 또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단지 마음이 덜 성숙하기 때문이다.

맥락상 여기에서 마음이 덜 성숙하다는 것은 ‘의지가 확실하게 서지 못한 상태라고 봄이 바람직하다. 그 일차적인 이유는 정이가 주장하는 대로 마음이 ‘리’라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있는 본체이므로 미성숙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차적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하여 마음을 ‘의지’에 대응시킬 때 해석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이정은 이어서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결과는 ‘자유스럽지 못함’에서 ‘불편함’으로 이어진다고 논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의지로서의 마음과 편안함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서의 마음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일을 하는 데 경을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이다.
(중략) 공손하면서 자연스러운 도리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반드시 ‘공손하면서도 편안해야 한다.’

자신이 공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에도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갖추려 하다 보니 자유스럽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의지가 바로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의지가 확충되면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되므로 결국 心樂은 성숙한 마음, 즉 도덕적 의지가 확고한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로서의 심리적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존양 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의미는 ‘理’를 갖추고 있는 본성으로서의 마음 말고도 ‘의지(志)’라는 형이하의 ‘氣’로서의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왜 ‘의지’로써의 마음인가?

정이가 마음이라는 용어를 ‘기’의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정이가 장재와 다르게 ‘마음’에 ‘理’가 갖추어져있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정이 이후로 우리는 도덕적 주체의 담지자로서 흔들림 없는 수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이는 마음이라는 개념을 실제 사용에 있어 형이하의 심리적 상태, 구체적으로는 ‘의지’라는 의미로써 사용함으로 인해 후세 사람들이 정이의 철학을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남겼다. 손영식 선생의 관점은 주희가 말한 ‘심통성정’의 입장에서 마음이란 본체의 측면에 있고, 작용의 측면이 있다고 하여 정이를 파악한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는 필자가 도출한 정이의 ‘기로써의 마음 - 의지’는 문제없이 독해가 가능할 것이다. - 만약 그레이엄의 관점에서처럼 정이가 마음을 ‘리’로 파악하고 ‘기’는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정이의 ‘心’에 관한 용어 사용은 관습적인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손영식 선생의 해석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특히나 마음에 대하여 ‘의지’로써의 기의 측면을 드러낸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본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기’로써의 마음을 논하는데 쉬운 접근방법인 ‘정(精)’에 대한 논의를 가급적이면 배제

하고 정이가 의지(志)를 기의 차원에서 말한 부분에 집중한 이유이다. 정이는 의도적으로 志로써의 마음을 언급함으로써, 도덕적 의지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내면의 도덕적 원리를 현실화하는데 중요한 수양의 구체적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기로써의 마음 중 ‘리를 향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돌아볼 것을 당부하는 정이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마음속에 세상의 도덕적 원리로서의 본체인 ‘理’가 갖추어져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왜 실제 현실에서 왜 도덕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구된다. 정이는 마음이 도덕적 원리를 내면에 포함하고 있지만, 그 잠재적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어주는 ‘통로’가 필요하고, 그러한 통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그 적절함은 도덕에 대한 의지를 확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형이하의 기(氣)의 세계에서 도덕을 지향하는 ‘의지(志)’를 보존하고 기름으로써 리(理)로써의 마음의 순성까지도 보존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앞서 다른 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정이가 마음을 기르는 수양 이후에 지향하는 다른 바는 없었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볼만한 점이다. 원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한 정이가 단순히 현실에서 ‘의지 세우기’만으로 인격 수양이 가능하다고 본 것인지의 여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현실에서 의지를 세움으로써 마음을 기르는 것과 병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43.

정이가 말했다.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이 어지러워 편안할 수 없는 것을 근심한다. 이것은 세상에 보편적인 병폐이다.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할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주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주희가 말했다.

“(전략) 이 마음이 보존되어 주인이 있으면, 학문에서도 귀착점이 있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생각을 다할 수 있다’는 정이의 말을 학문의 귀착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마음이 확립하는 것이 학문을 함에 있어 일종의 향도(嚮導)역할을 함을 주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이에게 있어 수양이란, 바른 생각을 갖게 하는 학문의 길로 향하는 출발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양이 ‘궁리’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이는 정호에 비해 경험적 지식을 중시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⁰⁾ 단순히 수양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이치를 탐구해 앎을 이룰 것(格物致知)’을 강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이는 내면에 도덕을 향한 의지를 확고히 세우고, 이를 통해 마음의 본체를 보존함으로써, 경험적 세계로 나아가 학문에 정진하여 세계의 이치(理)를 깨달아 이를 다시 내면화한 후에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10)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1, p.208.

참고문헌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1.

이현선,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장재와 이정의 철학 - 이정의 장재
비판을 중심으로』, 2010.

A.C. 그레이엄, 이현선 역, <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Two Chinese
Philosophers)》, 심산, 2011.